

기고

조철규 전 여수고등학교 교장



여수시 통합 청사 건립을 반대한다

여수시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 된 '3여 합의사항인 통합 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사퇴하라! 그리고 여수를 떠나라!'는 칼럼을 읽고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하여 여수시 통합 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통합 청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청사 통합이 1997년 3여 통합 당시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그 당시 3여 청사를 통합하자는 안이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와 같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청사가 분산되어 있음으로 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업무 추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지장이 많았고, 물적 손실 또한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가 하는 일을 처리하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 5G의 시대가 되었으며, 휴대폰,

화상기기, 유튜브, SNS, 드론 등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날로그 시대의 그 약속은 폐기 시켜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금은 모든 관청에서 전자문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인터넷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서로 상대방을 보며 대면 수업처럼 온라인 수업을 한다.

모 방송 연예프로에서 보듯이 트롯 가수나 시청자가 진행자 쪽은 현장에서, 시청자 쪽은 각각의 가정에서 생동감 있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이다. 그 뿐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बैं킹을 하고 은행에 가지 않는다.

각국의 정상들이 각자 자기 나라 집무실에서 원격 회상을 이용한 국제회의까지 한다. 이미 드론

이 도서지역의 택배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실용화단계가 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민원인이 관청에 일 보기 위해 직접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 세상이 된 것이다.

공무원들도 현재의 분산된 장소에서 굳이 이동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전체회의나 간부회의를 화상회의로 하면 되고, 지시 전달도 화상통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된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둘째로, 통합 청사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처럼 이곳저곳에 부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역지를 쓴다. 그러나 업무 부서마다 현재 사용 중에 있

는 첨단 전자 통신 장비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망을 잘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으로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392억 원이라는 시의 혈세를 새 청사 건립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의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로, 여수시의 현재 상태가 복합, 집적화 시대에 어긋나며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다. 그러나 행정 조직은 집적화가 아니라 분산화 하는 것이 대세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행정 수도로 정부 행정부서를 옮기고, 국회의사당까지 지방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뿐만 아니라 만일 기존 청사를 한 곳으로 합치면 그곳의 기존 상

권도 영향을 받게 되어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다. 그리고 통합 청사가 건립되면 그로 인해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던 632명의 공무원이 한 곳에 합쳐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사용할 새로운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주차장 확보에 드는 예산이 얼마며, 시청 주변의 주차 환경은 어떻게 되며, 웅천 지역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마도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리고 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통합 청사가 있어야 도시 경쟁력이 생긴다고 우겨댄다. 그러나, 웅천하고 호화로운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한군데로 모은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은 통합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목민관이 비전, 추진력, 판단력, 설득력, 열정, 사명감 같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매사에 사심 없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솔선수범한다면, 부실 공사, 날림공사 같은 부정 부패를 척결한다면 여수시의 경쟁력은 살아 날 것이다.

유능한 리더는 혈연, 학연, 지연

에 얽매이지 않고 객체적소에 인재 고루 등용하여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원군이 이끄는 수군은 패배하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연전연승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 때문 아닌가? 경쟁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요즘 경기도 지사 이재명이 하는 일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 분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을 설득시킨 다음 계곡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았다.

최근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반발을 설득하여 코로나 19 환자 입원실로 학생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다. 리더가 이런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한다면 여수시는 일등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명장 밑에 약졸 없고, 조직은 리더의 능력만큼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1997년 3여 통합할 당시 합의한 통합 청사 건은 진즉 폐기 되었어야 마땅하다. 아직도 그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건강부회이며, 시대 변화를 모르는 사람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다행히 여수시의회가 이에 관련된 예산을 전혀 삭감한 것은 다행이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fire.

코로나19와 음주운전의 공통점 '방심하다 큰 코 다친다'

작년 12월 이맘때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과 무증상으로 어느 누구나 감염 위험성이 있고 음주운전 또한 각종 연발연시 소모임 술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로 직결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순천시는 지난 11월 20일 기점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코로나

19 감염과 음주운전이 우리 곁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술자리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대 야간근무 중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 위반 관련 신고와 각종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결국 두 가지의 공통점은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귀결' 된다는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모든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잘 헤쳐나간 것처럼 한명 한명이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노력과 관심을 가진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안전한 사회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기환/순천경찰서금당지구대경장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nd advertising.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